

당선작 작품집



Love Yourself    





Love yourself

2010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 당선작 작품집



Love yourself 2010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은 지역사회 내 자살 문제 및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개최되었다.

- 8 추진개요 및 입상자
- 10 심사후기
- 13 표어·포스터 당선작



Love yourself 2010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

발행일 : 2010년 9월 3일

발행인 : 이영문

발행처 : 수원시자살예방센터 || www.csp.or.kr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134-3(3층) || Tel. 031-228-3279

디자인·인쇄 : 명조기획(031-257-8173)

*****이 작품집의 저작권은 수원시자살예방센터에 있습니다.

1. 개최목적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내 자살문제 및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2. 추진개요

- 주 최 : 수원시
- 주 관 : 수원시자살예방센터
- 후 원 : 수원시교육청, 경기방송사
- 참가대상 : 수원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심사위원 : 이영문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
전세훈 수원시장안구보건소장
양훈도 SBN프로덕션 본부장
홍순달 경기방송국 보도국장
전진희 매원고등학교 국어교사
홍창기 권선고등학교 미술교사
- 공모기간 : 2010년 6월 1일 ~ 6월 18일
- 심 사 : 1차 - 2010년 7월 19일, 2차 - 2010년 7월 22일
- 당선발표 : 2010년 7월 26일
- 당 선 작 : 표어 8점, 포스터 9점
- 시 상 : 2010년 9월 7일 16시~18시 장안구보건소 열린마당
- 전 시 : 2010년 9월 8일 ~ 2010년 9월 15일 수원시청 로비

3. 주제 (자살예방 / 생명사랑)

-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알리는 내용
-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내용
-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자는 내용
- 자살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
-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내용

4. 작품 규격

- 표 어 : 32자 이내 자유롭게 - 원고지 또는 A4용지에 작성함.
- 포스터 : 4절 켈트지 (39.5cm * 54.5cm) - 포스터칼라 또는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함.

5. 입상자 명단

표 어		포 스 터
장인주 영일중 3학년 5반	수 원 시 장 상	조혁빈 울현중 3학년 10
지정은 영신중 1학년 8반	수 원 시 교 육 장 상	신수경 조원중 2학년 7반
이우연 영일중 3학년 8반	경 기 방 송 사 장 상	김수민 매현중 1학년 7반
김세현 산남중 1학년 2반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상	정예슬 서호중 3학년 7반
김민경 동성중 2학년 7반	장 려 상	손민정 영일중 1학년 3반
심정은 망포중 1학년 8반		이지우 매현중 1학년 4반
이새봄 동성중 2학년 9반		정수경 매현중 1학년 5반
황시윤 조원중 2학년 2반		정은혜 송원중 2학년 8반
		지현영 산남중 2학년 14반





매해 개최되는 공모전을 통해서 중학생들의 재기 넘치는 작품들을 보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다. 참여 작품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때로는 우열을 가리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새롭게 바뀐 교육부 지침으로 응모 작품이 줄어 매우 아쉽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각 과목의 지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과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자면 자신에 대해 알려는 노력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더 멀고 깊은 곳에 시선을 둘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지구만큼 귀한 존재' (2009년
표어 당선작)라는 인식과 '살고 싶은 사람, 죽으려는 사람' (2009년 포스터 당선작)에 대한 삶의
관찰은 청소년 자신에게 큰 자원이 될 거라 믿는다. 단순히 점수에 반영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선택하는 학교와 아이들의 현실이 안타깝다.

Love Yourself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은 쓰고, 그리는 재능에 앞서 생명과 죽음(자살)
을 대하는 시각이 얼마나 공감을 얻어내는가에 비중을 둔다. 2010년 공모전은 두 번에 걸쳐 심사
가 이루어졌다. 총 111점의 응모작품 가운데 1차 심사로 75점이 가려지고, 최종 2차 심사에서 17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올해 공모전은 과거의 당선작품을 모방하거나 평범한 수준
의 작품이 많았다. 그 가운데 새로운 세대다운 발상과 언어구사력이 돋보이는 표어 작품들과
'심청전'을 재해석한 포스터 작품 등은 매우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포스터에서 수채화기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다면 훨씬 풍요로운 작품이 나올 것
으로 생각된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제도적, 구성적 방안이 마련되
길 기대한다.

몇몇 당선학생만이 아닌 생명과 죽음을 깊이 생각해보고, 작품을 위해 노력한 모든 학생들에
게 박수를 보낸다.

2010년 7월 22일

Love Yourself 2010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 심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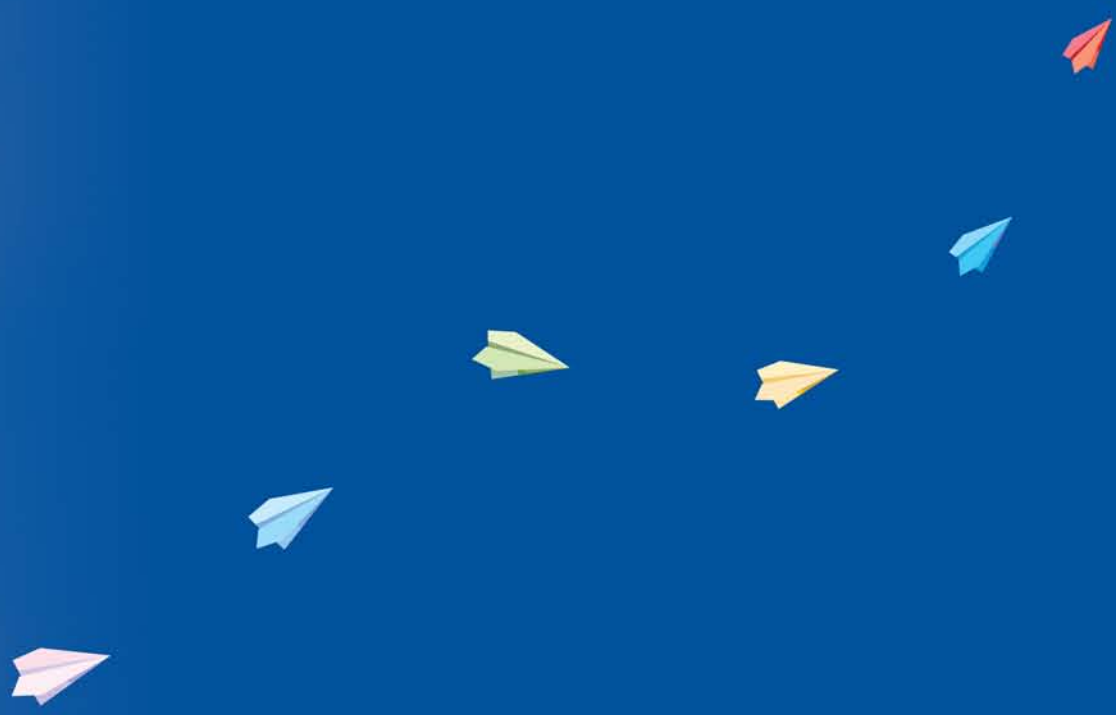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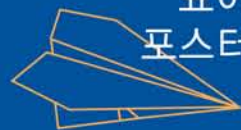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Love yourself

2010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

당선작

표어 8점
포스터 9점





조혁빈

울현중학교 3학년 10반

사람이 죽은 후에도 몇 분간 심장이 뛰다고 해요. 그렇게 자신의 심장은 뛰고 싶어 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기 보다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래요.



장인주

영일중학교 3학년 5반



제 작품에 표현된 아이는 문이 잠겨있는 방 안에 있고, 자살의 문턱에 있는 마음이 닫힌 아이예요. 그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주위사람이 '관심'이라는 비밀번호를 풀어서 도와줄 수 있어요. 외롭고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면 자살의 안타까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분만

주변을 돌아보세요.



신수경

조원중학교 2학년 7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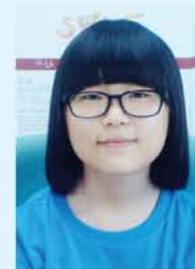
사춘기를 겪으면서 많이 힘들고 자살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생각나서 그만두었어요.

친구 중에 자살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장례식에 다른 친구들이 우는 모습과 부모님이 오열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때의 마음을 떠올리며 작품을 그렸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 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과 관심' 입니다.

지정은

영신중학교 1학년 6반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죽고 싶어서가 아니고 "관심을 주세요"라는 자기만의 표현인 것 같아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게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수민
매현중학교 1학년 7반

자살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나는 소중한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가꾸어 가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스터에 담았어요.



이우연
영일중학교 3학년 8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먼 미래를 보지 않고, 그때의 고달프고 힘든 상황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정예솔

서호중학교 3학년 7반

제 작품은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바다에 뛰어든
 기적전을 그렸어요. '심청전'을 읽으면서 심청이
 의 자살은 아버지를 위한 호도가 아니라고 생각했
 어요. 자살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한번뿐인 삶에서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김세현

산남중학교 1학년 2반



제 표어에 있는 '로그아웃'은 우리의 삶에서 영
 영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번뿐인 삶을 되새기고, 희망을
 버리지 말았으면 해요.



손민정

영일중학교 1학년 3반

꽃봉오리는 아직 자라지 않은 청소년의 모습이고, 햇빛은 사랑, 물주는 것은 관심을 상징해요. 성적이나 왕따, 학교폭력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주위에서 햇빛과 물이 되어줘서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가 서 있는 그곳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거야,
기다려봐

김민경

동성중학교 2학년 7반



누구나 알고 느끼듯이, 정말 죽고 싶고 힘든 시간이 흐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지만 정말 잘 버텼어.” 라고 생각할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힘들어도 기다려 보세요. 좋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지우

매현중학교 1학년 4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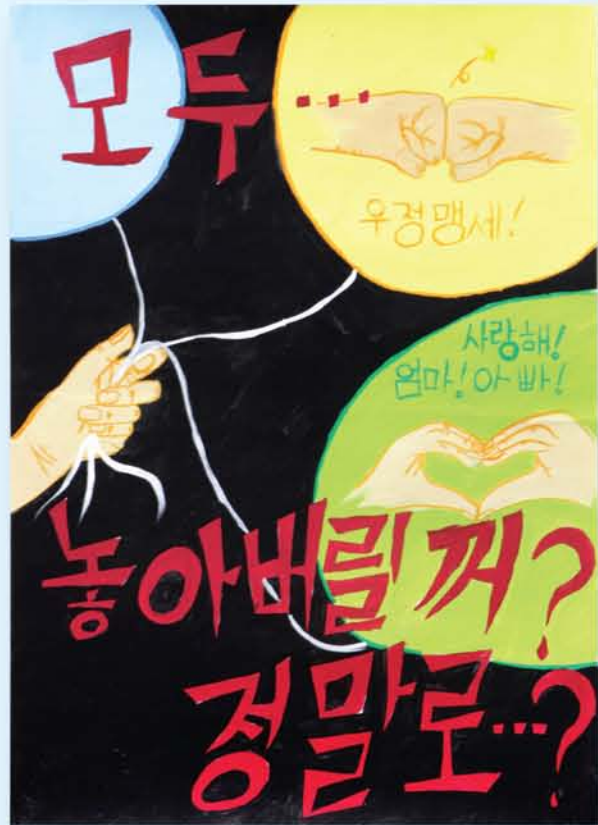
자살하려는 사람을 보고도 눈물만 흘리고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보낸다면 그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정은

망포중학교 1학년 8반



빚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통해 빚을 청산할 수 있지만, 자살을 한다면 자신의 죽음에 힘들 가족이 빚 때문에 더 힘들거예요. 죽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걸 말하고 싶었어요.



정수경

매현중학교 1학년 5반

어느 한사람의 자살하기 직전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포스터 속에 풍선을 잡고 있는 손은 자살하려는 사람의 손인데요, 풍선들은 그 사람의 추억들이에요. 풍선들을 놓아버리면 추억들이 모두 흩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이새봄

동성중학교 2학년 9반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아름다운사람지킴이 9기 활동을 할 때 자살하려는 사람은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위를 둘러보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고 싶어요.



정은혜

송원중학교 2학년 8반

자살은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자살도구인 밧줄과 그 안에
슬퍼하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눈물이 영정 사진에
떨어지는 것을 표현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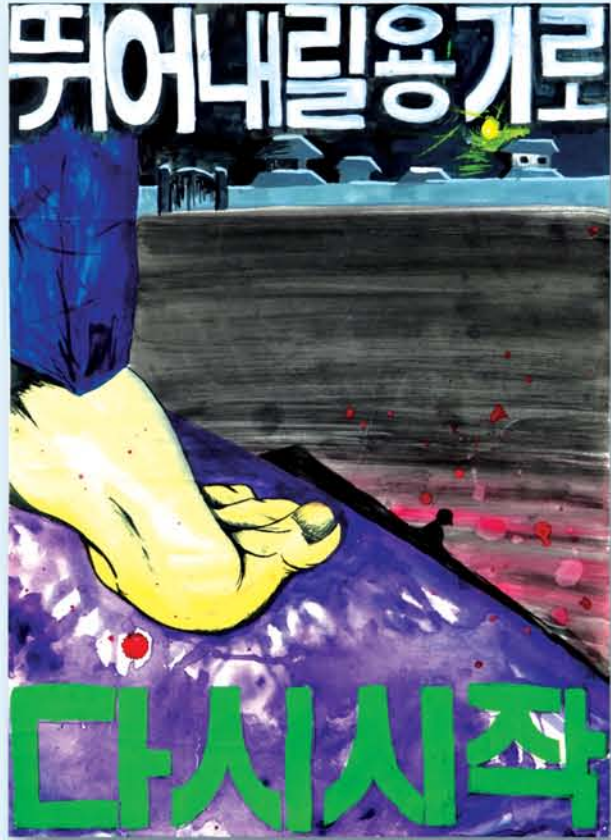
**죽고자 하는 용기로
노력한다면
당신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겁니다.**

황시윤

조원중학교 2학년 2반



제가 존경하는 롤모델이 얼마전에 자살을 해서
많이 아쉬워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큰 성공을 이루는 마
시멜로우 이야기처럼 다시 한 번 삶에 대해 생
각한다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이 용기를 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세롭
게 시작하기를 바래요.



지현영

산남중학교 2학년 14반

중학교 1학년 때, 새로운 환경에 친구들과의 사이도 좋지 않아 많이 힘들었는데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같은 이유로 힘들어 하는 친구들에게 자살생각을 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